

최악의 현장에 최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 복음으로 여는 에베소서 -

시편 71:6, 에베소서 2:1-9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주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 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 양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이 땅에 237 나라에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과 천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반드시 강단메시지 성취의 주역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의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 시대의 문제, 흑암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주역이 되는 우리 교회와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에 우리 후대들이 주역,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어려운 현장에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말씀을 남겼던 인물이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이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도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강단메시지를 소화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성취를 체험하는 게 다이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 그러나 무속, 점술, 우상문화가 가득했던 에베소는 확실한 복음이 증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많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과 삶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최악의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이 에베소서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변화시켜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고 전 세계 237 나라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학적인 책으로 기록하였다. 왜냐하면 에베소교회는 두란노서원에서 시작된 세계를 복음화할 전도와 선교의 센터였기 때문이다.

1. 첫 번째로 최악의 현장이었던 에베소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오래되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오직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는 것이다.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shalom’이다.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참된 평강이다. 이 평강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평강이다.

(2) 그들은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들이 있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영육간에 타락된 세상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의 영적상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사탄과 귀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 것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복음을 믿어 성도가 된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아직 오직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평가하며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다.

(4)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RUTC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교회에 주신 최고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1) 첫 번째 신학적인 주제는 예정론이다. 예정론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먼저 보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중간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말한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향해 예정이라는 말씀을 했을까?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넷째는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증거 해야 한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주권과 은혜와 전도의 관점에서 동시에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정론은 결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전도현장의 사실적인 고백이며, 체험이다.

(2) 교회론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요절을 공동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치유, 회복)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행할 때 교회의 참된 목적과 역할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만물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RUTC 성전이

다.

(3) 다음으로 에베소서는 마귀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① 에베소서 6 장 11 절을 보면 마귀는 ‘간계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6 장 13 절에서 17 절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②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주관자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6 장 12 절 말씀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 중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다.

(4) 구원론이다.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 장 8 절에서 9 절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신학적인 주제인 인간론이 있다. 1 장 6 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 1 장 12 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장 14 절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3.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당연하고 절대적인 목표를 알려주고 있다. 에베소서 4 장 1 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스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성이다. 또한, 에베소서는 전도자들의 삶의 절대목표를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 장 15 절 말씀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속에 전도자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구원만 받고 그 자리에 멈춰서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4 장 22 절에서 24 절이다.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마음, 생각,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 장과 6 장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 성도들은 다음의 실천메시지를 듣고 인정만 해도 어느 날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대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맞아.

나는 이것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해야 해.’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썩어 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더욱 잘 자라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 장 25 절에서 26 절이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4 장 31 절에서 32 절이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 장 3 절에서 4 절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장 11 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 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 장 18 절에서 22 절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절부터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6 장 1 절에서 3 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음은 6 장 5 절에서 7 절 말씀이다. 이것은 당시에는 노예와 상전의 관계한 것이지만, 지금은 직장생활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될 때까지 묵상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언약 중의 언약은 우리를 영세 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 이 예정과 은혜의 건장한 성경적인 진도신학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주시라고 24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4. Image, 이미지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역을 작품으로 남겨야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에베소와 같이 가장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악의 사람들과 최악의 현장에 정리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도전해보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